

아스널, 22년 만에 EPL 우승 눈앞

런던 дер비 웨스트햄 원정서 레안드로 토르사르 결승골로 1-0 신승... 24승 7무 5패로 단독 선두 이어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이 22년 만의 리그 우승에 가까워졌다.

아스널은 11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런던 дер비이자 2025~2026시즌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점 3을 추가한 아스널은 24승 7무 5패(승점 79)로 단독 선두 자리를 이어갔다.

한 경기 덜 치른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74)와는 승점 5 차다.

EPL은 38라운드 체제로 진행돼, 잔여 일정은 단 2경기다.

아스널은 오는 19일 강등이 확정된 번리랑 맞대결을 펼치며, 25일에는 리그 14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격돌한다.

맨시타는 14일 오전 4시 팰리스와 경기하는데, 이날 맨시타가 패배하고 아스널이 번리를 꺾는다면 조기 우승도 가능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의 레안드로 토르사르

아스널이 마지막으로 리그 정상에 오른 건 무패로 우승했던 2003~2004 시즌이 마지막이다.

양 팀은 득점을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쉽게 골을 넣지는 못했다. 전반에는 골대를 두 차례나 때리는

아쉬움까지 겪었다.

다행히 후반 38분 레안드로 토르사르가 결승골을 기록했다.

박스 안에서 마르틴 외데고르가 내준 패스를 토르사르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아스널은 귀중한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칼럼 윌슨이 극장 동점골을 터트리는 듯했다.

그러나 주심은 VAR(비디오판독시스템) 끝에 주심은 득점을 취소했다.

득점 전 상황에서 아스널 수문장 다비드 라이아가 상대 공격전에 반칙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과로 아스널은 우승에 가까워졌지만, 웨스트햄은 강등 위기를 맞았다.

17위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37인데, 웨스트햄은 승점 36으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도지사예비후보

체육정책 간담회 12일 열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1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12일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가 참석한다.

각 후보들은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체육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발표는 시간대별로 진행된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간 정책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김관영 예비후보는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체육 정책을 설명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는 체육인뿐 아니라 체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FC 바르셀로나, 라리가 2연패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10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2025-26 스페인 라리가 3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우승하며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2-0으로 꺾고 잔여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전북 태권도 대표팀, 소년체전 금빛 담금질

진안 반다비체육센터서 전지훈련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이 진안에서 본격적인 전지훈련에 돌입하며 전국 무대 금빛 메달 사냥을 위한 담금질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전북 태권도 대표 선수단 63명은 지난 7일부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8일간의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 태권도 대표 선수단 결단식'은 선수단

의 사기 진작과 필승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안군은 이번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군은 체육시설 무상 제공과 선수단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 스포츠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삼성 최형우, 4500루타 '금지탑'

기록이 곧 KBO리그 역사

최형우(삼성 라이온즈 사진)가 걷는 길이 곧 KBO리그의 역사가 되고 있다. 끝나지 않는 전성기를 누리는 최형우의 존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 1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솔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NC의 투종 에이스 구창모를 만나 1회와 2회 모두 안타를 때려낸 그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개인 통산 4500루타라는 금지탑을 세웠다.

하루 전(9일) KBO리그 역대 최초로 2루타 580개를 채운 그는 하루 만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2002년 삼성에서 데뷔해 20년이 훌쩍 흐르고도 현역 선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형우에게 2026시즌은 매 경기 리그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올해 자신의 프로 21번째 시즌을 찾은 최형우는 자신의 20대 시절을 뛰어넘는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보여준 꾸준함은 곧 KBO리그의 역사가 되고 있다.

지난 3월28일 올 시즌 개막전이었던 대구 롯데 자이언츠전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한 그는 추신수를 뛰어넘고 KBO리그 역대 타자 최고령 출장 및 안타 기록을 새로 세웠다.

사흘 뒤인 31일 대구 두산 베어스전에선 7회말 홈런포를 날리며 역시 추신수가 갖고 있던 최고령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3일 대구 한화 이글스전에선 최고령에 더해 최다 기록도 세웠다.

당시 최형우는 4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 1볼넷 1득점, 말 그대로 맹타를 휘두르며 손아섭(두산·2622타수)을 넘고 KBO리그 통산 안타왕 자리에 올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역대 최초 2루타 550개, 통산 4500루타라는 대기록을 줄줄이 작성했다.

1983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44세인 그는 젊은 타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 그는 35경기에 나서 타율 0.371 46안타 7홈런 27타점 23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091을 기록 중이다. 삼진 14개를 당하는 동안 볼넷은 31개를 얻어냈다.

타율은 박성환(0.391·SSG 랜더



최다 안타 · 550 2루타 등 줄줄이 신기록 세우

스), 오스틴 딘(0.377·LG 트윈스)에 이어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으며, OPS는 2위, 홈런은 공동 6위에 해당한다. 볼넷은 리그에서 가장 많이 골라냈다.

최형우가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기록도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가 시즌 초반 35경기 만에 31볼넷을 기록 중인 만큼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 시즌 세 지명수 볼넷도 기대해 볼 만하다.

최형우의 한 시즌 최다 볼넷 기록은 KIA 타이거즈 시절이었던 2017년 세운 96개다.

현재 최형우의 누적 볼넷이 1228개인 만큼, 그가 당시에 근접하는 볼넷을 얻어낸다면, 양준혁(1278개)을 넘고 KBO리그 역대 최다 볼넷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

지금까지 9831차례 타석에 섰던 그는 69차례, 약 20경기를 더 소화할 경우 최정(SSG·1000타석)에 이어 1만 타석 고지를 넘게 되며, 18득점을 추가하면 손아섭(1405점)을 넘어 득점 2위에 오르게 된다.

최다 타점(1764점)은 이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통산 안타왕에 등극한 만큼 역대 최초 3000안타도 바라보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해 12월 삼성과 2년 최대 20억원에 계약해 다음 시즌을 마친 뒤 자신의 4번째 프리 에이전트(FA) 기회를 얻게 된다.

누적 2632안타를 기록 중인 최형우가 큰 부상 없이 지금의 기량을 유지해 선수 생명을 연장한다면 3000안타 고지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최형우가 올 시즌 타율 경쟁에서도 살아남아 타격왕까지 차지할 경우 2013시즌 이병규를 넘어 역대 최고령 수상자로 기록될 예정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